

2장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제 2 장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 1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 2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 3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 4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 5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 6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 7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 8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 9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 10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 11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 12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 13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앞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 14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 15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 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온 것이라
- 17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 18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 19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 20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 21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앎을 인함ियो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 22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 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 23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 24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 25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 26 너희를 미혹케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 27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 28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 29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서 론

기자는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를 1장에서는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1:4)라고 했는데, 본 장에서는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로라” (2:1)고 한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들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으로(요

1:7; 히 9:14) 효력을 나타내며, 이러한 믿음에 의해 마음의 깨끗함을 입은 자는(행 15:9) 죄를 범치 않게 되는 것이다.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또 범하고 회개하며 시종 회개를 되풀이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깨끗함을 얻은 후에도 죄의 뿌리는 약점으로서 남아 있고 육욕으로 있으며, 밖으로는 여전히 사단이 존재하여 성결의 은혜를 입은 자일지라도 유혹하려 한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유혹에 굴복하여 마침내 죄에 빠지는 일도 있게 된다.

이러한 때에 사단은 낙심케 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여 믿음의 길을 떠나게 하려 한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2:1). 여기에 “대언자” 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의 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을 의미한다. 또한 ‘도우시는 주’ 는 원역에는 ‘보혜사’ 로 되어 있고, ‘변호자’ 라는 뜻이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경우에도(속 3:1~2), 사단은 그를 적대하여 그의 일을 하나님께 송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우편에서 그를 변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언자**’ 가 되신다는 말은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을 변론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서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를 보시고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다.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는 구절을 통하여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의 두 번째 사역**을 깨달을 수 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 받기 위해 여러 가지 짐승을 속죄 제물로 드렸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짐승제사는 일시적이고 불완전

한 것으로 원형이 올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었다. 원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어 죄를 정죄하는, 다시 말하면 죄를 미워하므로 죄를 격퇴시키는, 죄 없는 생애를 사심으로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사는 신자들을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시고(롬 8:3), 게다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이루게 된 것이다(히 9:11~14).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물, 곧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하나님과의 간격에 다리를 놓으셨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중보이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우리들로 하여금 죽은 양심을 일깨우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함을 감사드리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히 3:1).

“신자들은 죄를 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를 “아노라” 하는 자들로서 “그의 계명을 지킬 것” 이요(2:3,4), 또한 주와 교제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주 안에 있는 자” 로서 그의 행하시는 대로 우리들도 행해야 할 것이다(2:6). 즉 주님과 교제하는 체험에 들어간 자는, 그 생활에 있어서도 매일 주님께 배움으로 그분의 생활습관과 그분의 생애가 ‘나의 것’ 이, 그리고 ‘우리의 것’ 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장에는 ‘거하다’ (있다, abide)라는 말이 8회나 기록되어 있다(2:6,10, 14,24,27에 2회, 28). ‘거하다’ (있다)는 말씀은 ‘머물다’ 또는 계속하다 ‘라’는 뜻이다. 한편으로는 세상의 힘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한편으로는 거짓 교훈이 우리들을 속이려 하는 때에, 어떻게 하면 신앙의 길을 지키며 주의 재림 때에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처음부터 들은 복음을 굳게 지키고(2:24),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2:14), 성령을 마음에 거하시게 함으로써(2:27)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를 가질 수

있다(2:24). 27, 28절에는 두 번이나 거듭 되풀이하여 “(항상) 주 안에 거하라” 고 한다(원역).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고 하셨다(요 15:4 개역 “내게 붙어 있으라”). 항상 이 복된 경험을 가진 자는 믿음의 참된 의미를 체험함으로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들은 언제까지나 “도의 초보” 인 “자녀들” (원역에는 ‘소자들’)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여 흉악한 자를 이기는 영적으로 성장한 “청년들” (2:13,14)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아버들” (2:13,14)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2:15,16), 즉 부, 명예, 쾌락 등은 육체의 욕망을 통하여 오며,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틈타 우리를 유혹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다 부질없이 썩어 없어질 것이므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마지막 때로,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가르침들이 횡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짓 가르침에 주의해야 하며(2:18~22), 모든 것을 통찰케 하시는 성령께서 ‘의의 교사’ 가 되셔서 모든 진리를 친히 가르쳐 주시며 항상 ‘주 안에 거하는 것’ 으로서 주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2:27,28).

Ⅲ. 무죄한 생애에 대한 권면, 2:1~28

1. 대언자이시며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 2:1,2

1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

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대언자이신 그리스도]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 : 이 서신을 쓴 목적을 1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격려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충만케 되기 위함이라고 논의했다면, 2장에서는 우리로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선언한다. 요한은 신자들이 단 하나의 범죄행위라도 범하는 것을 피하게 하도록 격려한다. 1장과 2장은 둘 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초월하고 살기 위해 신성의 능력을 활용하도록 격려하므로 사실상 1장과 2장 사이에 사상적 단절은 없다. 하지만 1:10에서 요한은 죄와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 경고한다. 이것으로 그는 그가 사람이 기꺼이 죄를 계속 범할 것을 허용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인가? 결코 아니다.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는 하나님의 자녀 앞에 놓인 목표이며(마 5:48),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에 도달하도록 모든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죄 없음이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요한은 죄를 묵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죄로부터 그를 구원할 수 있는 분 곧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버지 앞에서 : 1:2과 요 1:1,2에서 “~와 함께” 로 사용된 것과 동일한 헬라어 단어 ‘프로스’ (pros)가 쓰였는데, 이것은 대언자와 아버지의 친밀한 연합을 나타내며 증보자는 하나님의 임재 바로 앞에 그분과 동등하게 서 있다(요 1:1; 히 7:25).

대언자(헬: 파라클레토스, parakletos) : ‘파라클레토스’는 신약에서 요한만이 사용했다. 복음서에서는 이 단어가 성령을 언급하지만 여기서는 구원사역을 담당하시는 아들을 지칭한다. ‘대언자’ 보다는 ‘증재자’ 또는 ‘증

보자' 라는 번역이 훨씬 효과적이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헬: 디카이오스, dikaios) :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대언자가 되기에 적합한 이유는 그분이 우리와 한결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 짓는데 한 순간도 동의하지 않으심으로 여전히 의롭기 때문이다(히 2:18; 4:15; 7:26). 그 분이 죄를 지었다면 아버지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이며, 그분이 시험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참된 대표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영지주의자들은 모든 존재가 다양한 비율로 빛과 어두움을 품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러므로 이로부터 죄는 구주의 품성에까지도 조금은 자리 잡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하지만 사도는 이 거짓 가르침을 이곳에서 단호하게 반박한다.

[사단의 공격을 막아줌]

“만일 누가 범죄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참으로 조심스럽게 행하신다. 그분은 사람들이 사단의 무서운 공격을 받지 않도록 참으로 잘 방어해 주신다. 여러 가지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라거나 미혹을 당하여 죄에 빠지면 그는 우리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시고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런 분은 우리의 구주가 아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우리의 주께서 은혜의 보좌 앞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고 계신다. 그의 속죄의 희생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할 이유요, 의를 입혀 주셔야 될 이유요, 성화시켜 주셔야 할 이유로 주장할 수가 있을 것이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쳐다보고, 그를 붙잡으며 그가 최대한 우리

를 구원할 분이심을 믿는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흡족한 제물의 향기로서 하나님의 받으시는 바가 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께 위탁되었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의 성공에 관련되어 있다. 그는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관심사를 갖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구주이시다**” (편지 33, 1895).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능력]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그분의 속량함을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서 간구하고 계심을 기억하자. 그분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만일 누가 범죄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시니라.”

예수의 피는 공효와 능력을 가지고 믿다가 낙심한 자들을 위하여, 배도한 자들을 위하여, 큰 빛과 사랑을 거슬러 범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탄원하고 있다.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기 위하여 우리의 오른편에 서 있고, 우리의 대언자는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다. 그분은 자기에게 위탁된 소송의 변호에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으시다. 우리는 우리의 대언자를 신뢰할 수 있다. 이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기 때문이다. 큰 배도자 앞과 법정에서 그분의 드리시는 기도를 들어라. 우리를 위해 드리시는 그분의 기도를 들어보라. 이는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유혹이 많은 세상에 처한 그분의 교회를 잊지 않으신다. 시험과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보고 계시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렇다. … 그분은 핍박이 많은 이 세상에 처한 그분의 백성들을 바라보신다. 저주로 말미암아 시들고 망쳐진 모든 것을 보신다. 그리고 모든 사랑과 동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신다. 우리를 앞서 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셨으며, 진리와 사랑의 황금 사슬로 그와 그의 백성들을 한데 묶으시되 가장 애뜻한 동정심으로 그렇게 하신다.

그분은 가장 비천하고 가장 많은 압제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가장 시련을 많이 당하고, 가장 유혹을 많이 받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그는 손을 높이 들고 “내가 나의 손바닥에 저들을 새기었나이다” 라고 호소하신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호소를 사랑으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리뷰 1893. 8. 15).

[우리의 대언자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킴]

“참으로 헌신적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시선을 우리의 대언자께 고정시킨다. 그분은 인간과 영원한 보좌 사이에 서 계시며, 우리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며,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사 하나님을 아는 보다 완전한 지식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원고 7, 1898).

♣ 기도는 죄를 그만 짓도록

존 번연의 유명한 말을 우리는 기억한다.

“기도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그만 짓도록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기도를 그만 두도록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는 희생 제물이요

사탄에게는 채찍이 되기 때문이다.”

병에 반쯤 들어 있는 것을 흔들면 그 안의 내용물을 뒤섞어 놓을 수 있다.

그러나 병에 가득 차게 들어 있는 것은 흔들어도

내용물이 뒤섞이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영혼은 의심과

모든 형태의 악으로부터 보호될 수가 있다.

특별히 많은 젊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격하는 책들을 읽을 시간은 할애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읽을 시간을 내지 않는 것은

매우 슬픈 사실이다.

허드슨 테일러(J. Hudson Taylor)의 말이 생각난다.

"사탄은 우리 둘레에 울타리를 쳐놓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방해할지는 모르나, 우리 위에 지붕을 씌우고 우리가 위를 쳐다보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다."

2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 죄를 위한 : 만일 죄가 없다면 화목제물이 필요하지도 않았겠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께서 그분의 속죄의 죽음으로 그 죄를 담당하셨음을 보증한다. 그분은 우리 죄를 제거하기 위해 그분 자신의 피를 바치셨다(요 1:29; 히 9:25,26).

화목제물(헬: 힐라스모스, hilasmos) : ‘속죄’ , ‘~와 화해하다’ (히 2:17). “화목제물” 이 신의 진노를 달래고 관대하게 되도록 하기 위한 예물이지만 하나님은 달래거나 화해시킬 필요가 없는데, 이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롬 5:8). 하나님과 화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다(고후 5:18,19). 여기서의 헬라이어 구문은 그리스도가 화해시키는 자일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이 화목제물임을 강조한다. 그분은 제사장이며, 동시에 희생제물이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 :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죽으셨다(요 1:29; 히 2:9; 벧후 3:9)는 말이다. 모든 남녀와 자녀의 죄는 구주에게 전가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보편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우리에게 제공된 구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우리의 것이 된다고 명백하게 밝혀준다.

♣ 기나긴 침묵

<기나긴 침묵>이라는 제목의 촌극이 있다.

세상 종말에, 수십 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대한 평원에 뿔뿔이 흩어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앞에 비취는 눈부신 빛으로부터 몸을 움츠렸고 맨 앞부분 가까이 있는 몇몇 집단은 격하게 이야기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어? 그가 고난에 대해 어떻게 안단 말이야?"

평원 건너편 저 멀리에는 그런 집단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견뎌내기 위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할까?"

그래서 이들은 가장 많이 고난 받은 사람들을 대표로 뽑아 파견했다.

유대인, 흑인, 히로시마에서 온 사람, 지독하게 불구가 된 관절염 환자, 탈리도마이드로 인한 기형아 등이었다.

그들의 결정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살아야 한다고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것 이었다!

"그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자.

그의 출생의 합법성이 의심을 받게 하자.

그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을 주어서 그가 그 일을 하려 할 때 그의

가족들조차 그를 미쳤다고 생각하게 하자.

그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반을 당하도록 하자.

그가 잘못된 비난을 받고, 그가 고난을 당하게 하자.

마지막에 혼자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가 무섭게 맛보도록 하자.

그 다음에 그를 죽게 하자.

그것을 입증해 줄 많은 무리의 목격자들이 있게 하자."

각 지도자들이 자기 몫의 판결을 발표할 때,
모인 사람들의 무리로부터 찬성의 술렁거림이 올라왔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판결을 발표하는 것을 마쳤을 때
기나긴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다른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갑자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이미 그 형벌을 다 당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2. 그의 행하시는 대로 행함, 2:3~6

3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았다’, 즉 하나님과 언약관계 속에 있었다(렘 22:16).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애야말로 하나님을 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이 서신을 통하여 요한은 지식만이 가치가 있으며, 행위는 하나님 앞에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데 특별히 중요하지 않다는 영지주의의 주장을 계속 반박한다. **사도들은 의롭게 되는 자들은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단언한다**(롬 2:13; 약 1:22,23). 경건한 주장은 도덕적 행위와 비례한다.

4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가현설과 같은 이설의 영향을 받아 그분의 계명은 무시하면서 그리스도를 안다고 실제로 주장했던 자들을 언급한다. 교회 안의 이러한 기만적인

가르침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믿는 자들은 진리대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으며,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단호히 언명하셨기 때문이다.

♣ 슈바이처의 이단관

무엇이 최대의 이단이나?

최대의 이단은 교리상의 이단이 아니라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최대의 이단이다.
기적을 ‘믿는다’든지, ‘안 믿는다’든지, 삼위일체 하나님이나, 아니나
이런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아프리카 흑인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으리요?

5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4:7)다. 모든 참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며, 따라서 주의 계명을 지키도록 유도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유래된 사랑에 힘 입어 순종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5절)과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행하는 것(6절)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증거 한다.

6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거한다(헬: 메노, meno) : ‘머무르다’ , ‘계속하여 있다’ , ‘남아 있다’ . 요한

은 ‘메노’ 를 자주 사용하는데, 그의 복음서에서 41회, 서신에서 26회 사용한다. 이것은 종종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존재하는 연합(요 14:10)과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에 존재해야 하는 유사한 연합(요 15:4~10; 요일 2:24~28; 3:6,24)을 나타내기 위한 신비로운 의미이다. “저 안에 거한다”라는 구절은 바울의 ‘그리스도 안에 있다’에 상응하는 요한의 표현이다. 이 구절이 신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또한 매우 실천적이며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생애에 필수적이다.

그의 행하시는 대로 : 그분의 지상 생애에서 예수는 모든 믿는 자가 따라야 할 완전한 모본을 남기셨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모방하고 그 원칙을 자신이 살아야 하는 매일의 생애에 적용하기 위해 날마다 가르치신 교훈을 기억하고, 그분의 습관, 특별히 죄를 버리고 선을 선택한 습관들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그분의 죄 없는 생애를 철저히 연구해야 한다.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구주의 생애를 모방하고 있다는 증거를 매일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애는 공언과 부합해야 한다.

할지니라(헬: 오페일로, opheilo) : ‘빛지고 있다’ (마 18:28), ‘~할 의무가 있다’ (요 13:14)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변화는 우리 품성과 습관과 우리의 직업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품성은 일시적 선행이나 일시적 악행으로 드러날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말과 행실의 경향(傾向)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 우리는 그의 형상을 입고 그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의 뜻을 행하여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자는 성신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갈 5:22,

23)를 맺힐 것이다” (정로, 58~59).

[가짜 성화]

“지금 종교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성화는 성경상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이루는 스스로 높이는 정신과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정신을 수반한다. 그런 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화란 믿기만 하면 완전한 성결에 이를 수 있는 순간적인 일이라고 가르친다. 그들은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축복은 그대들의 것” 이라고 말한다. 그 축복을 받는 측에서는 더 이상의 아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한다. 그들은 동시에 그들의 계명들을 지킬 의무에서 해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를 부인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성과 의지의 표현인 원칙들과 조화를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와 성품에 일치하여 거룩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노력이나 극기 혹은 세상의 어리석은 짓으로부터의 분리를 요구하지 않는 안이한 신앙에 대한 갈망이 믿음, 곧 믿음만이라는 교리를 인기있는 교리로 만들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사도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약 2:14,20).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위험한 교리를 반대한다.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실행하지 않으면서 하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참람된 일이다. 그 까닭은 진정한 믿음은 성경의 약속과 말씀에 근거를 두기 때문이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하나라도 고의로 범하면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스스로를 속이지 않도록 하라. 알려진 죄를 범하는 일은 성령의 증거 하시는 음성을 침묵시켜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한다. …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요일 2:4,5)” (마라나타, 232).

[그리스도와 같이 되려고 노력함]

진리를 찾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 보려는 목적으로 그를 바라볼 때에 그는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들의 완전함을 깨닫고, 완전한 것이 아니고는 어떤 것에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서 그의 삶을 숨겨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성이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나 있음을 보고 점점 더욱 열렬히 그분과 같이 되어 보려고 애를 쓴다. 언젠가는 한바탕 전쟁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혹하는 자가(마귀) 그의 부하 중 한 사람을 잃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어떤 싸움은 사단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강화시켜 온 속성들과 싸워야 한다. 인간 대리자는 그가 더불어 싸워야 하는 것, 곧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시는 완전함에 달한다는 생각과는 정반대가 되는 어떤 이상한 힘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그가 그 싸움에서 승리를 얻게 해 줄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 구주께서 그가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를 강하게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원고 89, 1903).

[도덕적 분위기를 쇄신함]

자아보다도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될 때 구주의 아름다운 형상이 그리스자에게서 반사된다. … 자아가 희생의 제단에 놓여져야 비로소 그 품성에서 그리스도가 반사될 것이다. 자아가 매장되고 그리스도가 마음의 보좌를 차지할 때 영혼을 두르고 있는 도덕적 분위기를 쇄신할 원칙의 계시가 있을 것이다(편지 108, 1899).

[완전한 모형에 접근해 감]

사람이 구속주의 역사와 친숙하게 될 때 자기 속에 심각한 결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무나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생애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크신 모본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연구를 계속한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사랑하는 주님의 정신과 그의 모습을 포착한다. 바라봄으로써, 즉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그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

우리가 예수의 생애를 모방하는 것은 멀직이 떨어져서 그를 바라봄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의 완전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취미를 우아하게 하고, 품성을 고상하게 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되는 것이며, 시도해 봄으로써(Try it), 즉, 믿음과 사랑으로 열렬하고 참을성 있는 노력으로 완전하신 모본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거듭함으로써(Try again and again)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 그의 말씀, 그의 습관, 그가 가르치신 교훈들 — 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것처럼 면밀히 연구해 온 그 품성의 덕을 빌려 받게 되고 우리가 그토록 찬양해 온 정신이 스며들게 된다. 예수는 우리에게 “만 사람에게 뛰어나”고 “그 전체가 사랑스러운” 분이 된다(리뷰 1887. 3. 15).

3. 새 계명, 2:7~11

7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새(헬: 카이노스, kainos) : ‘새로운 종류의’ . ⇔ 옛(헬: 팔라이오스,

palaios) : ‘오래 전에 주어진 계명’

처음부터 : 그리스도인 경험의 시작부터

말씀(헬: 로고스, logos) : ‘가르침의 본문’ , ‘기별’ . 요한은 그 결과로 “사랑하는 자들” 로 하여금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했던 예전의 교훈을 말한다. 그는 자신이 전한 내용들이 전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전해오던 옛 계명이라 말한다. 사실 사도 요한이 가르친 사랑을 비롯한 계명들은 모두 율법에도 명시된 것들이다. 그래서 그는 옛 계명이라 말한 것이다.

8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
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새 계명 : 옛 계명이 충분했으므로 사람들은 그 권고에 유의했어야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율법의 참된 목적을 잃어버렸다.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계명” 이 가진 본래의 광채를 드러냈다(마 5:22).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 그리스도에게는, 계명은 갱신할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이는 그것이 그분의 품성의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계명은 그것이 “참된 것” 이 되기 위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도록 작용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성취된다.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춤 : “참 빛”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현시가 이미 비취고 있다. 성육신 이래로 참 빛이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고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어두움에 거하는 것에 대해 변

명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예수의 오심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축복과 함께 새로운 책임도 가져왔다.

9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영적인 계몽을 주장하면서 여전히 동료 신자들에 대해 미움을 품는 자는 그가 “지금까지” 곧 그가 거짓주장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아주 작은 미움의 기색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심령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데 충분하다(마 5:21,22).

10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며(4:8) 하나님은 빛이시다(1:5). 그러므로 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자기 형제를 계속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생애를 살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분의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다. 빛은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없다.

11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데 반하여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거한다. “갈 곳을 알지 못하니” . 이에 대한 완전한 표현을 그리스도께서 직접 언급하셨다. 요 12:35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 빛은 보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빛을 거절하면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된다(시 82:5; 전 2:14; 사 6:10). 반면에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더 많은 빛으로 인도함 받는다(잠 4:18,19). 소경된 자는 자신이 눈 먼 것을 알지만 사단이 눈 멀게 한 자들은 자신이 눈 먼 것을 알지 못하며 도리어 자신이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신들을 행복한 결말로 향하는 밝은 길로 행하는 뛰어난 존재인 것으로 기만당한다(창 3:6).

4. 영적 자녀들에 대한 개인적 호소, 2:12~29

(1) 기록이유, 2:12~14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위나 능력 면에서 동일하지 않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도 있고 장성한 어른과 노년층도 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공통적인 가르침이 주어지며 그에 상응하는 복종이 요구되는데 특히 그들이 서로 사랑할 것과 세상을 버리는 것이 그것이다. 아버지들은 명예롭고 권위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배우는 위치였으며 지위와 권위는 없었다. 청년들은 일반적으로 힘과 활기를 연상시켰다. 여기에서 그들은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함으로써 악한 자를 정복했다.

12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자녀들아(헬: 테크니아, teknia) : 노소를 막론한 모든 신실한 교인들을 지칭한다. 특정 연령대에 대한 기별은 13, 14절에 언급된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 사도는 개괄적인 고찰(1:4~2:11)로부터 구체

적인 사안(2:12~)으로 전환한다. 그러나 먼저 그는 특정 집단을 지명하면서 그가 글을 쓰는 이유를 열거한다. 네 번이나 그는 “내가… 쓰는 것은” (12,13)이라고 말하며, 두 번 “내가 쓴 것은” (14)이라고 말한다. 추측컨대 요한이 현재 시제로는 그가 막 쓰려고 하는 것을, 과거시제로는 그가 이미 쓴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 : 또는 ‘그(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즉 그의 품성과 사역에 힘입어 회개하는 죄인의 죄를 용서하신다. “사함을 얻음”의 헬라어 시제는 용서를 한 과거 행위의 결과가 계속되고 있음(…ing, 진행형)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복음의 능력은 죄 사함에 있다**(눅 24:47).

13 아버지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앎이요
청년들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요한은 신자들을 “아버지들”과 “청년들” 두 그룹으로 나눈다. “아버지들”은 백성의 연장자들이나 지도자들(행 7:2; 22:1), 곧 연수(年數)에서 앞선 것 이외에도 그리스도인 행로에서도 연장자이며, 따라서 영적으로 성숙한 계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태초부터 계신 이”는 곧 아들에 관해 말하고 있으며, “앎”이란 헬라어 ‘기노스코’(ginosko)인데 요한은 모든 신자들이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구주와의 교제에 대하여 내적 확신을 향유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빌 3:10).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울과 함께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딤후 1:12) 있음을 증거 할 수 있어야 한다.**

악한 자 : 곧 마귀. 신자들이 얻은 승리는 그들 자신의 그릇된 욕망과 습관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악한 자, 곧 마귀의 악의적인 증오와 교묘한

유혹에 대한 승리를 포함한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이 악한 자의 노예로 속박당하여 있으므로 이러한 속박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얻는 유일한 길은 사람에게 남아 있는 단 하나의 개인적인 능력-곧 다른 주인을 선택하고, 그들의 연약한 의지를 그분께 굴복시키는 능력-을 사용함에 있다. 그럴 때 그리스도가 그들을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영원히 지배할 것이다(롬 6:13~23).

이기었음(헬: 니카오, nikao) : ‘정복하다’ . ‘니카오’ 가 신약에서 사용된 28회 중 6회는 이 서신에, 18회는 요한의 다른 저서에서 나타난다. 사도의 생각은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 에 집중되어 있다. 헬리어 ‘니카오’ 는 신자들이 과거에 승리했었으며 그들이 승리한 열매를 누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14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यो 아버지
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यो 청
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복음과 영적성장]

1. “너희가 강하고” - 영적인 강건함 : 영적성장에 대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과실을 맺는 것으로 묘사한다(요 15:1~17). 과실은 가지나 나무에 붙어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는다. 이와 같이 신자들도 그리스도께 붙어있을 때에만 성장할 수 있다. 또한 그리스도께 붙어있을 때에만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영적인 군사가 되는 것이다(엡 4:14~16).
2.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함 : 신자들은 마귀의 꾀계를 물리치고 모든 사악한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이기기 위해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

3.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 영적으로 승리함 : 성도들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의 세력이다. 이에 사도 바울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 했다(딤후전 6:12).

12절에서 사도는 신자들에게 용서받은 죄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믿었으며, 이곳에서는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이 있다고 생각한다.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개인적인 지식이 영생에 필수적임을(요 17:3) 깨닫기에 그의 서신과 복음서에서 이 지식을 강조한다. 13절에서는 마귀에 대한 청년들의 승리를 기록했다면, 14절에서는 그 승리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엡 6:10~18)을 드러낸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군사들로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고무시키고 무장시킨다. 구주 자신도 유혹자와의 투쟁에서 기록된 말씀을 사용했다(마 4:1~11). 그리스도인들이 자아와 죄에 대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도배를 하고, 그 권고대로 따라하면서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를 때뿐이다.

♣ 기도하는 가정

링컨 대통령은 어린 시절 자기 가정의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하였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오막살이 통나무 집

구석구석에 깔려 있는 것 같았다.

집안뿐만 아니다. 들에서 일할 때나 내가 성장하여 가게에 나갈 일할 때나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언제나 내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링컨의 어머니는 몹시 가난한 살림 가운데에서도

그 가정을 기도하는 가정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이들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들을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신앙적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값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위대한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겼던 것이다.

♣ 아버지의 기도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악할 때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에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 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 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더하여 내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사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D. 맥아더 장군의 기도문에서)

(2)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2:15~17

15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

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죄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지 죄에 희생당한 죄인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가옥과 토지, 의복과 가구, 친척과 친구는 가치 있는 재산이다. 하지만 이것들 중 어느 것이라도 영적인 생애를 방해할 만큼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은 마음에 우상이 되는 것이다(마 10:37; 눅 14:26). 확실한 것은 자아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실제로 이간시킨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재물 둘 다를 섬기거나 사랑할 수 없다(마 6:24).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라.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위하여 보존되어야 한다. 그 사랑을 세상에 내던지지 말아라’ . 이러한 권고와 주의를 주는 이유는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온 것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데, 신자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므로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되겠다.

세상의 것들은 타락된 본성의 3가지 지배적인 성향에 따라 세 부류로 나뉘어진다(창 3:6).

첫째, “육신의 정욕” 이란 그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악을 갈망하는 사람의 감각적인 본성(롬 7:18; 8:1), 즉 악에 탐닉하고자 하는 육신의 갈망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방종에 대한 모든 강렬한 욕구를 포함한다.

둘째, “안목의 정욕” : “육신의 정욕” 이 육체에서 일어나는 죄에 특별히 적용된다면, “안목의 정욕” 은 시야를 통해 자극되는 정신적 쾌락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세상의 죄된 쾌락의 대부분은 눈을 통해 경험되어진다(마 5:27,28). 그러므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 려야 하며(살전 5:22),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 (고전 10:12)해야 한다.

셋째, “이생의 자랑” 이란 세상적인 재물에 대한 물질주의적 만족,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대신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일에 대해 과도한 자부심을 느끼며, 다른 이들은 그들의 소유에, 그들 자신의 아름다움에 혹은 그들의 자녀들에 대해 자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자랑이나 앞서 말한 정욕도 아버지에게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사단과 함께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

17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도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의 일시적인 삶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매일의 생애에 적용하는,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영구적인 삶을 비교하여 강조한다. 사망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도 임하지만, 그는 영생의 보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거한다’ 고 말할 수 있다(요 10:28; 11:26).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일시적인 것, 죽음과 죄에 완전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들과 함께 소멸할 것이 틀림없는 것을 사랑한다. 세상과 세상의 죄된 것들이 사라질 때에, 죄를 사랑하는 자 역시 사라진다. 그러나 자기의 애정을 영원한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한 왕국 그리고 항상 살아 있는 의의 원칙에 두는 사람은 영원히 거할 것이다(사 40:6~8). 여기에 나오는 요한의 말은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아남기 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를 더 바랐던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었을 것이다(요일 3:16).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 남겨 놓은 여백]

“언제나 세상 쪽으로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 감정과 계획과 생각들이 더욱 더 세상과 같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과 구주 사이에 여백을 남겨 놓는다. 사단은 이 빈틈으로 비집고 들어온다. 천하고 세속에 물든 이기적인 계획들이 그들의 경험과 섞여 짜여지게 된다” (리뷰 1887. 6. 7).

[하늘 금화가 아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세상으로 가는 길의 보조역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세상을 신앙에 약속된 것으로 삼으라고 하신다.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을 일차적 관심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것들은 하늘의 금화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 자기의 형상과 그의 주소 성명이 있는 도장을 찍지 아니하셨다” (원고 16, 1890).

(3) 적그리스도들과 그의 이단들을 경계하라, 2:18~26

18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 : ‘마지막 시간’ . 성경 저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연대기적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훈으로서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도록 준비시키고자 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요한의 기별은 그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곧 돌아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도록 격려시켰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또한 매일이 그들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도록 고무시켰다. ‘이것이 마지막 때라’ 는 엄숙한 선언은 신자들을 더욱 열렬한

증인으로 분기시킬 것이었으며,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재림을 촉진시킬 것이었다.

적그리스도(antichrist) : ‘그리스도에 반대하여’, ‘그리스도 대신에’, 곧 ‘그리스도의 대리자’ 라 자칭하며 그리스도의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거짓되게 주장하는 자를 가리킨다. “적그리스도”란 이름은 신약에서 오직 사도 요한만 사용했다(요일 2:22; 4:3; 요이 7). 요한은 분명 당대 영지주의의 가현설과 케린투스설과 같은 이설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최초의 “적그리스도”는 여러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 그리스도에게 대항해 온 사단임을 기억해야 한다. 인간이 창조되기 오래 전에 사단은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려 했으며(사 14:12~14; 겔 28:12,13), 그 이래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적대관계를 조성해 왔다(살후 2:8,9).

이르겠다[KJV-shall come, 막 이르려고 하다] :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도래에 관한 예언이 그가 글을 쓰는 시점에도 성취되는 과정에 있음을 계속 설명한다.

저희가 들은 것 : 신자들은 마지막 때의 사건들에 대해 여러 그리스도인 교사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왔다(살후 2:3).

많은 적그리스도 : 복수 형태로 보아 어떤 하나의 특별한 징후를 가리키기 보다는 오히려 모든 이단적인 반대자들을 “적그리스도”로 분류했음을 나타낸다. 그리스도교가 아직 초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거짓 가르침들이 이미 기반을 얻어 신흥교회에 침입하고 있었다.

이러므로 우리가... 아노라 : 많은 적그리스도들의 출현과 그들의 배도와 배교에 대한 예언을 통해 그것이 다가오는 마지막 종말의 징조임을 신자

들에게 경고한다.

[적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함]

“말씀의 깨달음에 혼란이 있는 사람들, 적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과 동화될 시간이 없다. 다니엘과 같이 자기 운명의 시간과 장소에서 있다. 다니엘과 요한의 예언들을 깨달아야 한다. 이 책들은 서로를 해석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아야 할 진리들을 세상에 주고 있다. 이 예언들은 세상에 증거 되어야 한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예언들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예언 자체를 설명할 것이다.

세상의 죄악 때문에 주께서는 이제 곧 세상을 징벌하려고 하신다. 그는 또 각 종교 단체들이 그들에게 주신 빛과 진리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을 곧 징벌하려 하고 계신다. 첫째와 둘째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연합한 큰 기별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일에서 주된 임무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와 율법을 드러내어 놓고 따를 것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표징이다(겔 20:12, 20).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는 것을 가시화(可視化)시켜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세상을 구별짓는 표가 되어야 한다”(원고 10, 1900).

[두 부류의 사람들로 분류되고 있는 사회]

“모든 사회는 순종하는 사람들과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 큰 두 부류의 사람들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들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 드러날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 곧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다. 적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큰 배신자의 신하들이다. 그들은 사단의 깃발 아래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한다. 그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짓밟음으로써 그들의 지상 정부에 충성을 보이게 하는 국법을 만들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다.

사단은 사람들이 분명하고 뚜렷한 시력을 가지고 아주 중대한 문제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별 중요하지 않은 질문들을 던져 사람들의 마음을 다른 데로 이끌고 있다. 원수는 세상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소위 그리스도교계는 크고도 결정적인 역할을 보여줄 극장이 되도록 되어 있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양심을 지배할 법률들을 제정할 것이다. 바벨론은 만국을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먹일 것이다. 모든 나라가 다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원고 24, 1891).

[온 하늘은 그리스도의 편에 있음]

“적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시작한 반역을 수행하려는 결심은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계속 역사할 것이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투기와 증오심은 점점 더 그 정도가 심해 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깃발을 숨기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들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며, 쉽게 살기 위하여 악을 행하는 무리들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감화로 어떤 사람이 선한 일에 끼치는 감화가 크면 클수록 원수는 그 사람을 핍박함으로써 더욱 더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다. 그러나 온 하늘은 그리스도의 편에 있고 적그리스도의 편에 있지 않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존귀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하신 일을 대항하여 자신들을

높이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적그리스도는 정해진 때가 오면 그리스도의 진노를 느낄 것이다. 그분은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참고 순종하며, 견딘 모든 사람들, 돈이나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지 않은 모든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해 두실 것이다” (원고 9, 1900).

[사단의 마지막 싸움]

“원수는 교회에 대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시계에서 은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가 존재해 오고 있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고, 그의 놀랄만한 능력은 더 한층 깨달을 수 없다. 사람은 사단의 포로이다. 그러므로 본성적으로 그의 제안을 따르고 그의 명령대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는 자기 자신 안에 악을 효과적으로 저항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람이 것처럼 무서운 원수를 대항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의 욕망에 영향을 주고 위로부터 온 힘으로 그를 강화시켜주는 산 믿음으로-사람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때뿐이다. 다른 모든 방어수단은 전혀 소용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단의 능력은 제어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이해해야 할 중요한 진리이다. 사단은 왔다갔다 하고 지상에서 위 아래로 걸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느라고 매 순간 분주하다. 그러나 열렬한 믿음의 기도는 그의 가장 강력한 활동을 좌절시킬 것이다. 사단은 세상에 다가오고 있는 전반적인 멸망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도 포함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그들을 정복하기 위한 그의 활동은 더 한층 확고하고 결정적이 될 것이다. 남녀들이 어떤 새로운 빛이나 어떤 새로운 계시를 받았노라고 공언하면서 일어날 것인데, 그들의 경향은 옛 지표를 믿는 믿음을 흔드는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의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지니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영혼들은 속임을 당할 것이다. 거짓 소문들이 유포될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울무에 사로잡힐 것이다. 우리는 각종 형태의 오류에 대

하여 아무리 경성해도 지나치지 않다. 왜냐하면 사단이 사람들을 진리에서 쫓아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확고한 품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퍼티(putty, 유리창 등에 접착제로 쓰는 일종의 풀임:역자주)로 만든 공과 같아서 마음대로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들은 어떤 분명한 형태와 견고함이 없으므로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쓰일 곳이 없다. 이런 유약함과 우유부단과 무능은 극복되어야 한다. 역경에 의하여 끌지워지거나 굴복될 수 없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품성에는 불요불굴이 있다. 사람들은 도덕적 용기와, 우쭐해지거나 매수당하거나 위협당할 수 없는 정직이 있어야 한다” (마라나타, 66).

19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 이니라

즉 진리를 함께 하는 공동체와 친교로부터 나갔음을 뜻한다. 만일 거룩한 진리가 그들의 마음에 뿌리내려 있었다면 그 진리는 그들과 우리를 하나로 있게 하였을 것이다. 신실한 자들은 거짓교사들이 함께 하는 동안에는 그들의 참된 특성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진리를 떠났을 때 그들의 이설이 밝혀졌으며, 그들이 결코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20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미혹자들의 시대에 처해 있는 제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그 격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너희는 ~ 기름부음을 받고” :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들이며 그들의 이름에 이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들은 은혜의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는다.

- 2) “거룩하신 자에게서” : 이러한 축복의 통로는 거룩하신 자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다.’ 주 그리스도는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되, 제자들이 그 자신과 같아지도록 그들에게 기름 부어 주신다.
- 3) 기름 부음의 결과, “모든 것을 아느니라” : 즉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제사장과 통치자와 선지자에게 한정되었으나(출 29:7; 삼상 9:16; 왕상 19:16), 새 언약 아래에서는 모든 신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모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지식을 받는다(요 14:26; 16:13).

21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앎을 인함ियो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 이니라

지혜로운 방법으로 사도는 신자들에게 교훈을 훈계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식을 일깨우며 그들에게 호소한다. ‘너희가 진리를 안다’ . 참된 그리스도인은 우월한 지식에 대한 반대자들의 주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성령이 계속해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기 때문에 그는 구원에 필수적인 지식과 그 지식을, 진리를 증거 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부여받는다. 또한 ‘진리에서는 거짓이 나오지 않는다’ 라는 말은 모든 거짓의 자취는 진리가 유래하는 근원에서가 아니라 다른 근원에서 나온다는 것을 설명한다. 진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며, 모든 종류의 거짓의 기원은 거짓의 아버지(요 8:44) 사단에게까지 결국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22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

니노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즉, 가장 큰 거짓말쟁이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마 1:1; 빌 2:5) : 요한은 첫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요 기름부음을 받은 자며,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구주이심을 확신시킨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구속의 핵심진리를 부인하는 것이며, 따라서 자신의 구원의 행로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행 4:12). 예수의 신성에 대한 부인보다 그리스도교에 대한 더 파괴적인 왜곡이 있을 수 없다. 가현설과 후기 영지주의와 다른 이설들은 그리스도의 본성에 관한 진리를 총체적으로 왜곡했으며, 요한이 염려하는 것은 주로 이러한 부인에 관한 것이다. 요한에게 현대 진리는, 그가 복음서(요 1:1~3,14)와 이 서신 4:1~3,15; 5:1,5)에서 설득력 있게 주장한 대로, 예수를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그와 동일한 진리가 역시 오늘날에도 큰 외침의 능력으로 선포되어야 할 이 시대의 현대진리인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므로 아들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것은 곧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요 10:30).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또한 아버지의 본성과 목적을 오해한다(요 1:18; 14:6; 고후 5:19; 마 10:32,33).

그가 적그리스도니 : 요한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거짓교사들을 적그리스도라 언급한다.

23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는 아버지의 증거와 증언을 부인한다. 이것으로 거짓교사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그들의 공언이 무익한 것임이 판명된다(요일 4:3; 마 10:33).

24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라
25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 이니라

사도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처음에 받았던 옛 교훈들을 계속 지키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들이 이 권고에 유의한다면 적그리스도들이 상실했던 것, 곧 아버지와 아들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계속해서 가질 수 있음을 보증한다. 이 권고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유효하다.

-처음부터 들은 진리와 믿음을 고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참된 유익은 무엇인가?

첫째,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거룩한 연합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함은 우리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24절).

둘째, 그들은 영생의 약속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한 신자들에게 하신 약속은 위대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인 것이다.

26 너희를 미혹케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본 서신을 쓴 목적으로, 신자들로 하여금 타락시키려 하는 자들을 경계하도록 강력하게 권면한다. '만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에 거하지 않는다면, 나의 쓴 것과 수고한 것은 헛것이 될 것이다' .

(4) 그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2:27~29

27 너희는 주께 받은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받은 유익한 축복 :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받아들였던 거룩한 진리에 대하여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름부음으로 말미암아 이르러 오게 된다. 요한은 성령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거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지배하는 영향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성령이 항구적으로 마음속에 임재하게 되면 영적인 시야가 확장되므로 인간의 교훈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며 거짓교사들에게 좌우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이 성경께서 의의 교사가 되셔서 신자들의 생애를 인도하실 때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리와 전혀 모순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에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기름부음을 받았음이 드러나는 것은 새로운 빛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이다(복음교역자, 297~300). 기름 부음은 미혹케 하는 이단들과 적그리스도들에 대항하여 기름부음이 거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가르친다. 또한 그것과 함께 오류와 불법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준다.’

28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는 말씀.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그가 강림할 때에 그를 만나기 위해 준비될 것이기 때문이다(마 24:13; 요 15:6). 여기에서 요한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실성을 확신하지

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시간의 불확실성을 인정한다. 이생을 주와 함께 보내는 자들은 그가 강림할 때에 그분을 환영할 것이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사 25:9). 회개한 죄인은 자기 확신에서 오는 담대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을 대면할 것이다. 반대로 주를 만나기 위해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속주를 취급한 것과 그들 자신의 죄된 기록을 부끄러워 할 것이다(계 6:15~17).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분의 강림을 기쁨으로 고대할 것이다.

29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본 절의 ‘안다’ 로 번역된 첫 번째 단어는 ‘오이다’ (oida)로서 직관적인 지식을 말하며, 두 번째 단어 ‘기노스코’ (ginosko)는 경험으로 얻은 지식을 의미한다(요일 1:3; 롬 3:19). 이와 같이 사도는 신자의 이론적인 지식을 의로운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실제적인 지식과 연결시킨다. 그리스도는 의로우시며,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중생하는 것은 성령과 협력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일인 것이다. 생각과 말, 행위가 진리와 일치되게 의로운 자는 그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을 증거 한다(마 7:20; 약 1:17).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도록 계속 마음을 굴복한다면 그는 하늘의 충만한 빛 가운데 행하기까지 진리와 더욱 더 일치하게 될 것이다(잠 4:18; 요 7:17).

사도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을 권고하는데(28, 29절), 이는 첫째, 주께서 재림하시는 심판의 때에 모든 시련과 환난의 때에도 주님과 동행한 자들이 기쁨으로 주님과 대면할 수 있게 하려 함이며, 둘째, 흔들림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의를 행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 라는 증거를 주시기 위함이다.